5부 성경과 우리

성경론 23편 성경의 권위 없이 그리스도도 없다 · 다섯 책의 합창

프레임 부록 「성경의 권위 없이 그리스도도 없다」 · 프레임 맺음말 · 프레임 부록 「톰 라이트의 『마지막 말씀』」(한 줄만) · 워필드 역자 서문 · 오웬 6장 끝(7–8절) · 바빙크 5장 끝([115]–[117]) · 신앙고백서 1.1–1.10 · 신앙고백서 1장 1장 전체

> ❓ **결국 성경론은 내 신앙에서 무엇을 바꾸나?**

🧭 흐름 한눈에

이 편은 시리즈의 마지막 질문, “그래서 성경론이 내 신앙에서 무엇을 바꾸나?”에 답한다. 출발점은 프레임의 짧은 부록이다. '예수는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다'라는 고백은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확실히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뜻을 가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책으로 주셨다. 이어 프레임의 맺음말을 따라 세 지점을 지난다. 성경이 스스로 하는 말부터 듣는 옛 방식(워필드), 순환논증 문제와 확신의 자리(오웬·신앙고백서 1.5), 예수님과 내 이성이라는 '두 주인'의 모순(바빙크)이다. 끝에서 프레임과 바빙크는 같은 말을 한다. 하나님은 책만 남기고 떠나지 않으셨고, 성경은 지금도 우리를 판단하고 살리는 늘 젊은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신앙고백서 1장 열 절을 다시 읽으며, 다섯 책의 목소리가 하나의 고백으로 모이는 것을 확인한다.

📜 절별 정리

📜 1. '예수는 주님'이라는 고백은 무엇을 뜻하나 (프레임 부록 0·1절)

프레임은 1972년에 쓴 이 초기 글에서 묻는다. 영감되고 무오한 성경을 왜 꼭

논증이다. 프레임은 이 논증이 완전히 타당하다고 인정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길로 간다. '예수는 주님'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무슨 뜻인지를 따라가는 길이다. 주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종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종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다. 그 요구는 세 가지 의미에서 절대적이다. 이의를 달 수 없고(아브라함), 다른 모든 충성보다 앞서며(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충성), 먹고 마시는 일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

1. 질문: 무오한 성경을 왜 꼭 믿어야 하나
2. 답: 예수님 때문, 단 '고백의 뜻'을 따라서
3. '주'를 고백함 = 나는 종이라는 고백
4. 하나님의 요구는 이의 없이, 무엇보다 먼저
5. 그 요구는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

> **요한복음 10:35**
>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구약 권위를 인정하신 예('흔한 논증', 10:33-36 문맥). ★ 기둥 구절: 바빙크 5장도 인용
>
>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 **마태복음 5:17-19**
>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러 오심. ★ 기둥 구절: 바빙크(5:17-18)·신앙고백서 1.8(5:18)도 인용
>
>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 **요한복음 14:26**
> 성령이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심. 신약의 권위를 믿라 인정하심 예. ★ 기둥 구절: 바빙크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시편 24:1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소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로마서 4:20

믿음이 없어 흔들리지 않은 아브라함. 이의 없는 순종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태복음 10:37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다른 모든 충성보다 앞서는 충성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0:31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영역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 2. '예수는 구세주'라는 고백은 무엇을 뜻하나 (프레임 부록 2절)

우리는 피조물이어서 주님이 필요하고, 죄인이어서 구세주도 필요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죽음이 내 죄에 대부분이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아는가? 프레임의 답은

자에게 구원을 약속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율법을 말씀하신 그분이 복음도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듯이, 우리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다.

1. 피조물이라 주님이, 죄인이라 구세주가 필요
2. 십자가의 충분함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다
3.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
4. 율법을 주신 분이 복음도 주신다
5.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댄다(아브라함)

> **로마서 3:23**
>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
>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요한일서 3:4**
> 죄는 불법이다. 죄는 주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
>
>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 **로마서 5:8**
>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복음의 내용
>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로마서 4:19**
> 자기 몸의 형편을 알고도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댄다(4:18-21 문맥)
>
>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 **요한복음 5:24**
>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 3. 그 말씀은 어디에 있나 — 하나님은 책으로 인도하신다 (프레임 부록 3-1·3-2절 · 신앙고백서 1.1·1.6)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확실하게 약속하는 그 말씀은 어디서 찾는가? 찾지 못하면 주님도 구세주도 갖지 못한다. 프레임은 두 신학 흐름이 그런 말씀을 내놓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성경을 사람의 종교 경험 기록으로 보고 이성과 경험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근대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신정통주의(칼 바르트로 대표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건으로, 성경을 그 증언으로 보는 20세기 흐름)다. 다만 두 흐름에 대한 이 풀이는 일반적 요약이고, 프레임이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밀히 따로 말씀하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한다. 하나님 음성을 내 상상이나 마귀의 음성과 가를 잣대가 없다. 성경의 하나님은 대체로 백성을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하셨다. 출애굽 뒤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에서 시작해 구약이 완성되었고, 예수님은 말과 삶으로 그것을 인정하셨으며, 교회는 사도들의 글도 같은 권위로 받았다. 신앙고백서 1.1도 하나님이 계시를 글로 남기셨고 이전 방식이 그쳤기에 성경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1.6은 '성령의 새 계시'라는 이름으로도 성경에 무엇을 더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1. 요구와 약속이 기록된 곳이 꼭 필요하다
2. 개인 계시: 하나님 음성과 상상을 못 가른다
3. 하나님은 대체로 백성을 책으로 인도하신다
4. 돌판 → 구약 → 사도의 글, 같은 권위
5. 고백서: 이전 방식은 그쳤고, 더할 수 없다

> **출애굽기 31:18**
>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증거판. 기록된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 자신의 글이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4:27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모세가 기록을 도왔지만 권위는 하나님의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4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로 사탄에 맞서심. ★ 기둥 구절: 신앙고백서 1.1·바빙크 5장도 인용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되었다. ★ 기둥 구절: 신앙고백서 1.2·1.4, 바빙크 5장도 인용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고린도전서 14:37

바울이 쓴 것이 주의 명령이다. 사도의 글이 지닌 신적 권위. ★ 기둥 구절: 바빙크 5장도 인용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베드로후서 3:16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나란히 둔다. ★ 기둥 구절: 신앙고백서 1.2(3:15-16)·바빙크 5장도 인용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갈라디아서 1:8-9

다른 복음은 천사가 전해도 저주받는다. 새 계시를 더하는 것 금지(신앙고백서 1.6)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책으로 인도하신다." — 프레임

"그래서 성경은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 방식들은 이제 그쳤기 때문이다." — 신앙고백서 1.1

📜 4. 주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성경의 저자이시다 (프레임 부록 3-3절 · 바빙크 5장 [115] · 프레임 부록 라이트 서평 한 줄)

프레임의 결론은 분명하다. 그런 말씀이 없으면 주되심(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요구하실 권리)도 구원도 없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과 떼어 놓을 수 없다.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을, 순종과 그분의 말씀을 하나로 묶으셨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를 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결론은 전도하는 방식도 바꾼다. 복음은 철학과 과학의 심사를 통과해야 할 가설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판단하는 권위의 말씀으로 전해야 한다. 바빙크도 5장 끝에서 같은 쪽을 가리킨다. 기록된 복음과 그리스도의 인격은 떼어 낼 수 없다. 사도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에게 권위가 있다면, 성경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에도 권위가 있다. 프레임이 라이트 서평에서 동의한 한 줄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성경의 권위'는 결국 성경을 통해 행사되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다.

1. 말씀이 없으면 주되심도 구원도 없다

3. 복음은 심사받는 말이 아니라 판단하는 말
4. 바빙크: 사도 증언 없이 그리스도도 모른다
5. 성경의 권위 = 결국 하나님의 권위

> **요한복음 14:15**
>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과 순종은 떨어지지 않는다
>
>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 **요한복음 14:23**
>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라. 순종과 '말씀'이 묶인다
>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 **요한일서 5:3**
>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
>
>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 **요한복음 12:48-50**
>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복음은 판단받는 말이 아니라 판단하는 말
>
>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 **요한일서 1:1**
> 사도는 듣고 보고 만진 증인. 바빙크가 사도 증언의 근거로 든 구절([108]). [115] 논지의 바탕

>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 5. 성경이 스스로 하는 말부터 듣는다 — 옛 방식과 순환논증 (프레임 맺음말 2·3절 · 워필드 역자 서문)

맺음말에서 프레임은 고백한다. 자기가 보수 진영에서 '진보적'이라는 평을 듣지만, 성경론에서만큼은 옛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역사 속 견해나 요즘 학자들의 견해에서 출발하지 않고, 성경이 계시와 성경에 대해 스스로 하는 말을 먼저 듣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대표적으로 쓴 사람이 워필드다. 그러면 순환논증(결론을 이미 전제로 깔고 증명하는 논리)이 아니냐는 물음이 나온다. 프레임은 두 가지로 답한다. 첫째, 최종 기준은 더 높은 기준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누구든 어느 정도의 순환은 피할 수 없다. 둘째, 정통 신학은 신론·인간론·구원론에서 모두 성경을 최종 원천으로 삼으니 성경론만 예외일 이유가 없다. 워필드 『성경론』의 역자 서문은 그 '옛 방식'의 요점을 미리 보여 준다. 신약 저자들이 성경을 부를 때 쓰는 말을 보면 한 구절의 권위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권위이기에 생긴다는 것(5장), 창세기 첫마디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3장), 느슨한 영감론은 느슨한 삶을 낳는다는 것(8장)이다. 역자는 이 치밀한 논쟁의 목적이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복, 곧 영원한 생명이었다고 강조한다.

1. 출발점: 성경이 성경에 대해 하는 말
2. 최종 기준은 더 높은 기준으로 증명 못 한다
3. 모든 교리가 성경을 최종 원천으로 삼는다
4. 워필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5. 워필드: 느슨한 성경관 → 느슨한 삶
6. 논쟁의 목적은 학문이 아니라 영생

> **요한복음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창세기 1:1

'태초에'. 영감된 성경 전체의 시작점(역자가 인용한 3장 문장 속 표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21

마지막 말. 영감된 성경 전체의 끝점(같은 문장 속 표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기인한다." — 워필드(역자 서문에 인용된 1장 문장)

📜 6. 증거는 기초가 아니라 버팀목이다 (오웬 6장 7·8절 · 신앙고백서 1.5)

오웬은 6장에서 앞 장들의 자증 논증을 전제로 둔다. 자증 논증은 성경이 스스로 내는 빛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는 논증이다. 그는 그 위에 '뒤따르는 고려' 두 가지를 쌓는다. 장 끝에 나오는 둘째 고려는 성경 전체의 일치다. 성경은 그토록 다양한 방식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졌는데도 하나의 정신과 목적을 지닌다. 그러니 저자는 지혜로운 한 분이고, 그 저자는 최고의 선이거나 최고의 악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행세로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이토록 거룩한 교리를 썼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남는 저자는 살아 계신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오웬은 곧바로 선을 긋는다. 이런 고려들은 믿음의 기초가 아니다. 기초는 성경 자체의 빛과 능력이고, 이 고려들은 그 기초 위에서 시련과 유혹의 때에 믿음을 버텨 주는 버팀목이다. 신앙고백서 1.5도 똑같이 짜여 있다. 교회의 증언과 성경 자체의 증거(일치, 목적 등)를 인정하면서도, 온전한 확신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1. 오웬: 성경의 일치는 지혜로운 한 저자를 가리킨다
2. 거룩한 교리는 마귀에게서 나올 수 없다
3. 그러나 이 고려들은 믿음의 기초가 아니다
4. 기초는 성경 자체의 빛과 능력이다
5. 고백서 1.5: 확신은 말씀과 함께하시는 성령에게서

> **예레미야 23:36**
> (정리자 보충) 오웬이 쓴 표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구절. 오웬은 장절을 밝히지 않음
>
>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 **디모데전서 3:15**
>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 증언의 가치(신앙고백서 1.5)
>
>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 **고린도전서 2:14**
> 성령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함.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신앙고백서 1.5)
>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 **이사야 59:21**
>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함께 백성에게 머문다. “말씀과 함께”(신앙고백서 1.5)
>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요한복음 16:13-14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 기둥 구절: 프레임 부록(16:13)·바빙크 5장(16:13-14)·신앙고백서 1.5 공통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분, 곧 살아 계신 하나님 말고는 어떤 저자도 인정할 수 없다." — 오웬

"이 고려들은 우리 믿음의 바닥과 기초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 기초 위에서, 시련과 유혹의 때에 버팀이 된다." — 오웬

"그러나 성경의 틀림없는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확신은 다른 데서 온다. 그것은 성령의 내적인 일에서 온다." — 신앙고백서 1.5

📜 7. 예수님과 내 이성,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프레임 맺음말 4·5절 · 바빙크 5장 [116])

프레임의 진단은 이렇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주의자와 개혁파도 예외 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성경은 예수 사역을 돌아본 인간의 글 정도로 여긴다. 그러면 성경의 오류는 자율적 이성이 가려내고 고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율적 이성은 하나님 말씀 아래가 아니라 그 위에 서서, 무엇이 참인지 스스로 최종 판단하려는 이성이다. 그러나 이 결론은 예수님과 나 자신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모순이다. 무오성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은

때문에 '근본주의자'라는 낙인이 붙어도 감수하겠다고 말한다. 바빙크는 5장 끝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성경 앞에서 첫째로 필요한 것은 판단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다. 성경을 향한 적대감은 비평가에게만이 아니라 '죽은 정통주의'의 죽은 믿음 안에도 있었다. 그렇다고 신자가 의심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믿음은 겉모습과 싸우는 일이다. 모든 난제가 풀린 뒤에 믿겠다는 사람은, 음식이 식탁에 오르는 과정을 다 알아야 먹겠다는 사람처럼 굶어 죽는다.

1. 성경을 인간의 성찰로 보면 이성이 주인이 된다
2. 예수님과 나,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3. 무오성 = 성경 속 하나님 말씀은 참되다
4. 바빙크: 성경 앞의 첫 의무는 겸손
5. 신자도 의심한다, 믿음은 싸움이다

> **마태복음 6:24**
>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프레임 부록 1절이 직접 인용(번역서 표기 6:22)하고, 맺음말의 '두 주인'은 이 말씀을 암시
>
>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 **고린도후서 10:5**
>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 기둥 구절: 프레임 부록 1절·바빙크 5장 [116] 공통
>
>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 **히브리서 4:12**
>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성경이 우리를 판단한다(바빙크)
>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누가복음 2:34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일어서게도 하신다. 성경도 같은 반대를 받는다(바빙크)

>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로마서 8:24

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믿음은 다 보기 전에 시작된다(바빙크)

>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요한복음 20:29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바빙크)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성경이 우리를 판단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 바빙크

📜 8. 하나님은 책만 남기고 떠나지 않으셨다 — 늘 젊은 생명의 말씀 (프레임 맺음말 7절 · 바빙크 5장 [117] · 신앙고백서 1.10)

프레임은 맺음말 끝에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점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경험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절대 인격이시다. 그분은 자기 말씀을 보증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면서, 우리가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건네시는 그분의 인격적 말씀이다. 프레임은 각주에서 자기 진영도 꾸짖는다. 정경이 완성되었으니

생각이다). 이것은 새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고백서도 이전 계시 방식은 그쳤다고(1.1) 하면서, 최고 재판관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1.10)이라고 부른다. 바빙크는 5장을 이렇게 닫는다. 성경의 목적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성경은 삶과 학문의 모든 영역에 권위를 가진다. 성경은 가장 높은 것을 인간의 말로 하는 책이기에, 오래되었지만 낡지 않는 늘 젊은 생명의 말씀이다.

1.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하신다
2. 성경 = 지금 내게 건네시는 인격적 말씀
3. '개혁주의 이신론'을 경계하라
4. 새 계시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5. 바빙크: 구원의 지혜이자 모든 영역의 빛

디모데후서 3:15-17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갖춤. 성경의 목적. ★ 기둥 구절: 신앙고백서 1.6·바빙크 5장 [117] 공통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8:18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성경의 권위가 모든 영역에 미치는 근거(바빙크가 장절 없이 쓴 표현)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시편 119:105

발의 등, 길의 빛. ★ 기둥 구절: 신앙고백서 1.7·바빙크 [117](장절 없이 쓴 표현) 공통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행전 28:25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 기둥 구절: 신앙고백서 1.10·바빙크 5장 [113] 공통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사야 40:8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바빙크 5장의 마지막 문장(장절 없이 쓴 표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만 남기고 없어져 버리신 분이 아니다.” — 프레임

📜 9. 열 절을 한 번에 — 신앙고백서 1장 통독과 지도 되돌아보기 (신앙고백서 1.1–1.10)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의 뼈대인 신앙고백서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는다. 1장은 하나님에 관한 장(2장)보다 앞에 놓였다.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든 그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이다. 흐름은 필요(1절) → 범위(2–3절) → 권위와 확신(4–5절) → 충분함과 분명함(6–7절) → 본문·번역·해석(8–9절) → 최고 재판관(10절)이다. 장은 “주께서 …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로 시작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끝난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묶어 둔 이 구조가 이 편 질문에 대한 고백서의 대답이다. 성경론이 바꾸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의 말 앞에 서 있느냐는 것이다.

1장 통독(우리 번역):

절	우리 번역 한 줄	무엇을 고백하나 · 이 편에서 함께 울린 책
1.1	“그 뒤에는 그 계시 전체를 글로 남기기를 기뻐하셨다.”	필요성 · 프레임 부록(고백이 뜻을 가지려면 기록된 말씀이 필요)
1.2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믿음과 삶의 규칙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영감·정경 · 워필드(성경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빙크(유기적 영감)
1.3	“흔히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다.”	정경의 경계 · 이 편 재료에서는 고백서가 홀로 말함
1.4	“전적으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	권위의 근거 · 프레임(성경의 권위는 결국 하나님의 권위, 그리스도가 저자)
1.5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증언하시는 일이다.”	자증성·성령의 내적 증거 · 오웬(증거는 버팀목, 기초는 말씀 자체)
1.6	“여기에는 언제든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새 계시라 하든, 사람의 전통이라 하든 마찬가지다.”	충족성 · 프레임 부록(개인 계시 비판)
1.7	“배운 사람뿐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	명료성 · 고백서(읽고 듣고 묻고 기도하는 평범한 수단)
1.8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	원어 본문·번역 · 워필드(원본에 대한 무오 옹호, 역자 서문의 소개)
1.9	“성경 해석의 틀림없는 규칙은 성경 자신이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함 · 프레임 맺음말(성경이 성경에 대해 하는 말부터)
1.10	“공의회의 모든 결정, 옛 저술가들의 의견, 사람의 가르침, 개인의 영적 주장도 그 앞에서 검토받아야 한다.”	최고 재판관 · 프레임 맺음말(책만 남기고 떠나지 않으심), 바빙크(성경이 우리를 판단)

1. 1장은 하나님 장보다 앞에 놓였다
2. 필요→범위→권위·확신→충분·분명→해석→재판관

4. 끝: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5. 다섯 책은 이 열 절의 해설자들이다

히브리서 1:1-2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1.1)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일서 5:9

사람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언이 더 크다(1.4)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 기둥 구절: 신앙고백서 1.4·바빙크 5장 [108] 공통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시편 119:130

말씀을 열면 우둔한 사람에게도 깨달음을 준다(1.7)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요한일서 4:1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개인의 영적 주장도 검증받는다(1.10)

“우리는 그 판결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 이 최고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 다른 누구일 수 없다.” — 신앙고백서 1.10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프레임	성경의 권위가 있어야 '예수는 주님, 구세주'라는 고백이 뜻을 가진다.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 지금도 내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신다.	주·구세주 고백에서 성경의 필요성 끌어내기, 'two lords' 모순, 개혁주의 이신론 비판	저자의 인간성과 영감의 방식은 두 글에서 다루지 않음 — 바빙크가 메운다. 확신의 출처는 다른 장으로 돌림 — 오웬·신앙고백서 1.5가 메운다
워필드 (역자 서문)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경은 생명의 말씀으로 일한다. 느슨한 성경관은 느슨한 삶을 낳는다.	성경 전체의 권위, 신약이 성경을 부르는 방식, 논쟁의 목적인 영생	역자의 안내문이라 워필드 자신의 논증은 본문 장에 있음. 저자의 인간성 설명은 서문에 보이지 않음 — 바빙크가 메운다
바빙크	성경이 나를 판단하게 하라. 의심이 있어도 믿음은 싸움이고,	겸손과 믿음의 싸움, 사도 증언과 그리스도의 불가분, 모든 영역의 권위	성령의 내적 증거는 5장에서 한 줄 정도 — 신앙고백서 1.5·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지혜이자 삶 전체의 빛이다.		
신앙고백서 1장	성경은 필요하고, 권위 있고, 충분하고, 분명하다. 모든 논쟁의 최종 판결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있고, 우리는 그 판결에 안식한다.	공적 고백의 간결한 규정, 1.4(권위)·1.5(확신)·1.10(최고 재판관)	근거와 적용을 길게 풀지 않음 — 네 해설서가 메운다. 성경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연결은 따로 말하지 않음 — 프레임이 메운다
오웬(6장 끝)	내 믿음의 기초는 증명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빛과 능력이다. 논증들은 시련의 때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다.	자증, 기초와 버팀목의 구분, '하나님이냐 마귀냐' 논증	근대 비평과 무오 논쟁은 그의 시대 뒤의 일 — 워필드·바빙크·프레임이 메운다

- 다섯 책은 같은 고백을 다른 자리에서 부른다. 고백서가 열 절의 가사를 주면, 나머지 네 책이 그 가사를 각자의 목소리로 푼다.
- 프레임은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를 그리스도 고백에서 끌어내고, 오웬은 '어떻게 확신하는가'를 성경 자체의 빛과 성령에게서 찾는다. 이 둘이 신앙고백서 1.4와 1.5를 함께 채운다.
- 프레임 맺음말이 남긴 순환논증 물음에는 오웬과 고백서 1.5가 답의 자리를 준다. 확신의 자리는 더 높은 증명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 프레임 두 글에 빈 저자의 인간성은 바빙크가 메운다. 바빙크 5장 끝에 빈

- 끝에서 다섯 목소리는 한 문장에 모인다. 성경은 지금도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신앙고백서 1.10, 프레임 맺음말 7절, 바빙크 [117]).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유기적 영감
성령이 저자의 인격·은사·기억·문체를 지우지 않고 통째로 쓰셔서, 성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사람의 글이 되게 하셨다는 설명.

무오성
성경이 단언하는 모든 것이 참되어 오류가 없다는 성질.

불오성
성경이 우리를 잘못 이끌 수 없고 그 말씀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성질.

자증성
성경이 다른 권위의 보증 없이 자기 안의 빛과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성질.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시키시는 일.

명료성
구원에 필요한 내용을 성경이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평범한 수단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히 말한다는 성질.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믿음과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들어 있어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다는 성질.

정경
'잣대'라는 뜻에서 온 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보고 받은 성경 66권의 목록.

자필본
선지자와 사도가 처음 기록한 원본 문서로, 무오성은 엄밀히 이 원본에 대해 말한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성경론이 바꾸는 첫째는 고백의 무게다. 성경의 권위 없이는 '예수는 주님, 구세주'라는 고백이 비어 버린다.
- 둘째는 최종 권위의 자리다. 예수님과 내 이성,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성경이 나를 판단하게 한다.
- 셋째는 확신의 자리다. 증거는 버팀목이고, 기초는 성경 자체의 빛과 말씀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이다.
- 넷째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다. 성경은 책만 남기고 떠나신 하나님의 유품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늘 젊은 말씀이다.
- 그래서 신앙고백서 1장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판결 안에서 안식한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프레임 · 성경의 권위 없이 그리스도도 없다
- 프레임 · 맺음말

- 오웬 · 6장 신적 권위를 굳히는 뒤따르는 고려들
- 신앙고백서 · 1장 성경에 관하여 (10절, 1647 영문)
- 바빙크 · 5장 성경
- 프레임 · 톰 라이트(N. T. Wright)의 『마지막 말씀』(The Last W…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